



수입농축산물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 개최
—우리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

우리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14일 “수입농축산물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를 지난 5월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농축산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참가하여 진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내용은 중앙대 김성훈 교수의 “세계경제와 한국농업”, 기독교농민회 최병상 국장의 “수입농축산물 현황과 한국농업의 위기”, 서울여대 송보경 교수의 “수입농축산물 오염실태”, 한살림 이순로 이사장의 “생명농업과 먹거리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동”, 농협중앙회 서원호 부장의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농협의 대응책”에 관한 발표와 김영원 의장의 “우리농축산물 먹기 국민운동본부 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거리 선박운송도중 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약제에 오염된 수입농축산물을 먹기 말자고 했으며 특히 파괴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우리농축산물먹기를 생활화하자고 했다.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백만인서명운동 전개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회장 이정해)는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명운동을 6월1일부터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배합사료가격이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닭 68%, 돼지 61%, 소는 33%나 차지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9.1%의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축산업의 생산성 기반확립, 축산농가 소득증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공격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키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서명운동을 적용키로 했다.

협의회는 자체조직을 근간으로 하고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전개키로 하였다. 8월10일까지 백만인 서명을 마치고 청원입법을 위한 청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육가공제품 원료육으로 수입
—12월31일까지 시한부 실시—

농림수산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시한부로 육가공제품 원료육에 한해 돼지고기를 수입키로 했다.

국내 돼지고기가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량이 격감되고, 육가공제품의 수요가 신장되고 있으나 원료육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 수입키로 하였다. 수입추천물량은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2개월 전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물량에 한해 추천하며 국내 가격이 90kg 기준 14만원에 도달하면 수출을 중단키로 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물량이 많지 않고 기간이 한시적이어서 국내 돼지고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분석하고 있지만, 개방을 위한 포석일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가격이 폭락할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가격이 오르자 수입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축산시험장 개장 30주년 기념식 개최



축산시험장(장장 설동섭)개장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10일 축산시험장 대회의실에서 내외귀빈, 임직원 및 관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설동섭 장장의 인사말에 이어 유운수 전임 축산시험장장의 축사, 이근상 육우과장의 발전상 소개와 함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비디오 상영도 있었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후 참석자들은 축산시험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금년 여름 이상기온 예상
—엘리뇨현상과 태양흑점 극대기—

중양기상대는 금년 여름기상을 엘리뇨현상과 태양흑점 극대기에 해당되어 비가 자주오고 그 기간이 길 것이며, 저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6, 7월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나 8월에 기온이 낮겠고, 장마는 6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7월하순부터 8월초까지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했다.

엘리뇨현상 등에 의한 여름철 저온은 가축위생에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마철 고온다습으로 인한 호흡기, 소화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의 안정성 확보대책 심포지움 개최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위해—

대한수의사회(회장 박근식)는 지난 5월19일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위생적인 축산식품생산을 위한 사료의 안정성 확보대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축산물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축산식품중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실행단계에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위생적인 축산식품생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캔사스주립대 정도섭 박사가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사료품질의 중요성”, Roshe 사 Mike Sissins 박사가 “사료첨가제의 효과적 이용”, 일본 가축위생시험장 M.Oka 박사가 “사료중 유해물질 오염방지대책”, 서울대 마점술 박사가 “사료의 미생물학적 위생관리 대책”, 서울대 이영순 박사가 “사료첨가제의 안정성 평가와 GLP”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배합사료가격 인상 움직임
—4~5%선 뛴듯—

배합사료업계는 가격인상을 위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주요 원료가격이 상승하고, 환율변동, 임금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업체들은 5월부터 사료가격을 인상하려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사료시장의 고속성장이 멈추고 판매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인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이상 경영압박을 이길 수 없어 곧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배합사료업계는 유통구조와 할인판매제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나 할인은 높아가면서 공장도가격만 인상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